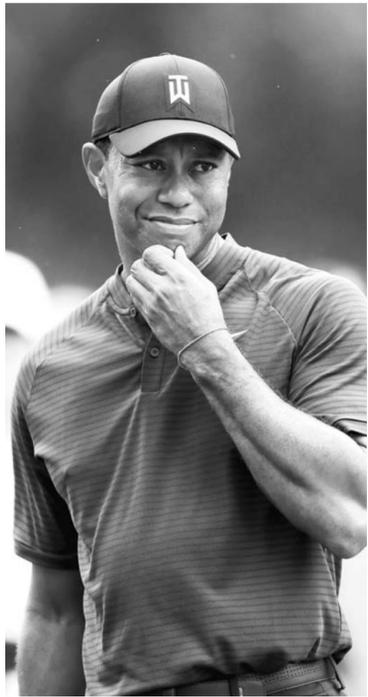


# 기다렸던 우즈-미컬슨 재대결 다음달 본다



타이거 우즈

### 2018년 이후 두번째...코로나19 자선 경기로 5월 중순 이후 개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5)와 필 미컬슨(50·이상 미국)의 두 번째 맞대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선 경기 형식으로 5월 중순 이후에 펼쳐진다.

대회를 개최하는 미국 터너스포츠는 23일(한국 시간) “더 매치: 챔피언스 포 채리티(The Match: Champions for Charity)”라는 명칭의 이 대회는 미국프로풋볼(NFL) 스타인 페이튼 매닝(44), 톰 브래디(43·이상 미국)가 함께 참가한 가운데 5월에 열린다”고 발표했다.

정확한 개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메모리얼 데이 주말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 메모리얼 데이는 5월 넷째 주 월요일로 올해는 25일이다. 따라서 ESPN 보도대로라면 우즈와 미컬슨의 올해 맞대결 이벤트는 5월 24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NBC 등 다른 미국 매체들은 “5월 15일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날짜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개최 장소도 미정인 가운데 ESPN은 “플로리다주가 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지난주 플로리다주지사가 이 대회 유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우즈와 미컬슨의 맞대결은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특히 올해는 매닝과 브래디가 함께 출전해 2대2 형식으로 진행된다.

미컬슨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 대회 개최 확정 사실을 전하며 “우즈가 매닝과 한 팀을 이루고, 나는 브래디와 호흡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경기처럼 무관중 경기로 펼쳐지며 TNT에서 중계할 예정이다. 수익금은 코로나19 관련 성금으로 쓰인다.

ESPN은 “우즈와 미컬슨이 모두 PGA 투어 소속 선수들이기 때문에 PGA 투어가 이 대회를 승인하는 절차가 남았다”며 “건강과 안전 등 몇 가지 문제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2018년 11월에 ‘더 매치’라는 명칭으로 처음 열린 우즈와 미컬슨의 대결에서는 미컬슨이 연장 네 번째 홀까지 가는 접전에서 이겨 상금 900만달러를 독식했다.

당시 이 경기에는 19.99달러(약 2만5000원)를 내야 볼 수 있는 유료 중계가 기획됐으나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결국 무료로 공개됐다.

현재 전 세계 골프 경기가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된 상황이라 우즈와 미컬슨의 5월 ‘챔피언스 자선 경기’는 골프 팬들에게 좋은 볼거리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필 미컬슨

## 당구팬들에 희소식 프로당구 PBA 7월 새 시즌 개막

프로당구협회(PBA) 투어가 7월에 새 시즌을 개막할 예정이다.

PBA는 7월 6~10일 그랜드워커히슬에서 2020-2021시즌 개막전인 ‘SK렌터카 PBA-LPBA 챔피언십(가칭)’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PBA는 ‘최근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현저히 감소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방역 체제’로의 전환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개막 시기를 7월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로야구 등 타 스포츠의 경우 시즌 개막에 대해 활발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약 2개월 이후인 7월에 이르면 국내의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PBA는 7월 개막을 목표로 6월 중에 선발전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세부 계획은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장장기 PBA 부총재는 “코로나19로 시즌 개막이 예정보다 뒤로 미뤄졌지만, PBA 팀리그 출범 등 더욱 다양한 콘텐츠로 당구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코로나19에 대비한 방역 지침 등도 철저히 마련해 무엇보다 안전하게 시즌이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BA는 올해 8월부터 ‘PBA 팀리그(가칭)’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현재 SK렌터카, 신한금융투자, 웰컴저축은행 등 5개 프로당구팀의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PBA는 상반기 안에 1개 팀을 추가로 창단 완료해 6개 팀이 총 6라운드와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일정으로 원년 시즌을 진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관중은 없어도 그라운드 뛰니 너무 행복해요

23일 오후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프로축구 인천유나이티드와 수원FC이 시범경기를 하고 있다. 코치진과 경기에 뛰지 않는 선수들은 관중석 등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코로나19로 시즌 개막을 연기하고 다른 팀과의 연습경기도 금지한 후 열리는 첫 시범경기다. 인천구단은 선수단과 과미디어의 동선을 분리하고 모든 관계자의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했다. /연합뉴스

## 챔피언스·유로파리그 8월에 몰아서 치를 듯

### 유럽축구연맹 시즌 마무리 구상

유럽축구연맹(UEFA)이 챔피언스리그 등 클럽 대항전을 8월에 몰아서 치르며 올 시즌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영국 방송 BBC 인터넷판은 UEFA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무기한 중단된 2019-2020시즌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를 8월 압축적으로 치르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를 마쳤다고 23일(한국 시간) 보도했다.

7월 31일까지 각국 정규리그를 마치도록 한 뒤 8월 11일과 22일 사이에 기존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의 8강전과 4강전을 잇달아 진행하고, 그 뒤 8월이 끝나기 전에 결승전을 치르겠다는 게 UEFA의 계획이다.

UEFA는 아직 정규리그 경기 수가 많이 남은 리그는 8월 초까지 마칠 시간을 쪼개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현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는 팀당 평균 9경기를 남겨둔 반면에 스페인 라리가와 이탈리아 세리에A는 11-12경기씩 남아 일정을 소화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BBC는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확실치 않아 UEFA는 클럽대항전과 관련해 모든 옵션을 고려 중”이라면서 “다만 8월이 되면 국가 간 이동 제한령이 풀릴 정도로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UEFA는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는 각각 16강 일부 경기를 남겨둔 채 지난달 3월 13일부터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연합뉴스



유럽축구연맹(UEFA)은 23일 챔피언스리그(UCL)와 유로파리그를 포함한 모든 대회를 8월 압축적으로 치르는 방향으로 논의를 했다. (UEFA 홈페이지 캡처)

## “테니스 남녀 투어 합치자” 페더러 주장에 지지 잇따라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39·스위스)가 남자 프로테니스(ATP) 투어와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를 하나로 합치자고 주장했다.

페더러는 23일(한국 시간)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지금 남녀 테니스 투어를 단일화할 시기는 생각은 저 혼자 하는 것이요”라는 글을 올렸다.

AP통신은 “페더러의 이런 주장은 ATP 투어와 WTA 투어가 선수 구호 기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나왔다”고 설명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테니스가 7월 초까지 중단된 상황에서 위기 타개를 위해 하나의 단체로 힘을 모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주장으로 해석된다.

ATP 투어는 1972년 창설됐고 WTA 투어는 1년 뒤에 설립됐다.

일부 투어 대회는 ATP와 WTA가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대회를 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투어 대회 일정은 ATP와 WTA가 별도로 진행된다. 페더러의 주장에 WTA 투어 설립자인 빌리 진킹(77·미국)도 동조했다.

킹은 “남녀 투어를 단일화하는 주장은 테니스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며 “페더러가 이런 이야기를 해줘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라파엘 나달(34·스페인) 역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런 세계적인 위기에 남녀 테니스 투어가 하나의 단체를 이루자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페더러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달린 팬들의 반응에 “지금 모든 스포츠 종목이 어려운 시기인데 2개의 별도 단체보다 하나의 강한 조직을 꾸려 대응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2관	어벤져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오픈 더 도어
3관	언어의 정원, 1917, 레터스 투 줄리엣
4관	어벤져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5관	오픈 더 도어, 고양이와 할아버지
9관	라라랜드
7관 씨네캐슬	서치 아웃, 그녀의 비밀정원
8관 씨네캐슬	어벤져스: 미드나잇 선 애프터 웨딩 인 뉴욕

###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기획전시  
강남구 (화양연화)  
2020.4.10(금) ~ 5.1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유영욱의 베토벤니즘  
4.29(수) AM 11:00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생중계

기획공연 포커스 II - 봄의 세레나데  
Spring of Serenade  
2020. 5. 12.(화) PM 7:00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생중계